

碩士學位論文

Emily Dickinson의 시에 나타난  
죽음과 불멸의 주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崔 珠 美

2010 年 2 月

Emily Dickinson의 시에 나타난  
죽음과 불멸의 주제에 대한 연구

指導教授 許 允 德

崔 珠 美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崔珠美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年 2月

## Emily Dickinson의 시에 나타난 죽음과 불멸에 대한 연구

崔 珠 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許 允 德

디킨슨은 19세기 청교도주의와 초월주의, 실증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시인이다. 디킨슨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뚜렷한 주제는 죽음과 불멸이다. 죽음과 불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디킨슨보다 더 많은 시를 쓴 시인은 없다. 디킨슨이 죽음과 불멸이라는 주제에 대해 집착한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청교도 신앙을 받아 드릴 수 없어 종교적으로 고민하던 그녀는 초월주의의 자기 신뢰와 인간 존엄의 정신을 수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내면세계에 몰입하여 죽음과 불멸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하게 된다. 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친구와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겪음으로서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깨닫고 사색과 관찰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게 된다.

디킨슨은 죽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관찰하며, 상상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죽음을 삶의 한 경험, 자연의 한 현상으로 만들어 그 실체에 접근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죽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 보편성·필연성·과괴력 등 죽음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함과 동시에 죽음이 삶의 가치를 일깨우고 불멸로 이끄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상상적 죽음을 통해 간정을 배제한 채 냉정한 태도로 죽음의 순간을 연습함으로써 의식의 소멸이 곧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디킨슨은 죽음이 삶의 마지막인 동시에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머무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무덤, 천국, 신 등 사후세계에 대해 탐색한다. 그녀는 천국과 불멸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의혹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결국 그녀는 종교가 약속한 내세에서의 불멸을 포기하고 현세의 삶이 갖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결국 그녀는 자연의 경건함과 생명력, 자아 의식의 무한함 속에서 불멸을 발견하고, 예술세계의 불멸성을 확신하며 시를 통한 불멸을 추구하고 획득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있어서 시는 영원히 지속되고 불멸의 삶 자체인 것이다.



※ 본 논문은 2010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	1
II. 죽음의 실체와 경험 .....	5
1. 관찰을 통한 죽음의 실체 .....	6
2. 상상을 통한 죽음의 경험 .....	19
III. 불멸의 인식과 추구.....	32
1. 불멸의 인식 .....	33
2. 불멸의 추구 .....	46
IV. 결론 .....	59
Bibliography .....	62
Abstract .....	65

## I. 서론

에밀리 디킨슨 (Emily Dickinson)은 청교도적 정신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와 실증주의가 점점 싹트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았던 미국의 여류시인이다. 디킨슨은 매우 단조로운 삶을 살았지만, 은둔생활은 충실한 내면의 성찰을 할 수 있게 했고 그녀의 창작활동을 풍요롭게 해 주었으며 반생애 동안 전적으로 시 창작에 몰두함으로써 1775편의 시와 1049여 편의 편지글과 산문을 남길 수 있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주로 크게 자연·사랑·죽음·불멸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녀의 시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시의 주제는 죽음과 불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녀가 쓴 1775편중에서 600편이 넘는 시가 죽음을 다룬다는 점이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강한 집착을 뒷받침해 준다. 위처(George F. Whicher)는 시인이 그 어떤 주제보다도 죽음을 더 자주 반복하고 있다<sup>1)</sup>고 주장하며 리차드 찰스(Richard Charles)는 디킨슨의 대부분의 시에서 죽음에 대한 강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sup>2)</sup>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디킨슨이 끊임없이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시에 담아내고자하는 면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앙키(Martha Dickinson Bianchi)는 그녀가 영원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다<sup>3)</sup>고 한다. 디킨슨은 죽음의 탐구만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더불어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여겨지는 불멸에 대해 알아내고자 한다. 앤더슨(Charles R. Anderson)의 지적에 의하면 죽음과 불멸이 그녀의 시적 능력에 도전하는 심오한 주제<sup>4)</sup>가 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렇듯 그녀의 시에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 존슨(Thomas H. Johnson)은 디킨슨에게 있어서 죽음과 불멸은 그녀의 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 George F. Whicher, *This Was A Poet: A Critical Biography of Emily Dickins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3), p. 298.

2) Richard Charles, *Emily Dickinson* (New York: Willian Sloane Associates, 1951), p.230.

3) Martha Dickinson Bianchi, *The Life and Letters of Emily Dickins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24), p. 83.

4) Charles R. Anderson,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 230.

타나는 주제이다<sup>5)</sup>라고 언급한다. 디킨슨의 대부분의 시는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사색과 관찰로 이루어지며 죽음에 대한 디킨슨의 남다른 관심은 그녀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녀가 삶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추구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디킨슨이 죽음과 불멸에 대한 주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디킨슨은 1830년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암허스트(Amherst)에서 태어나 몇 차례의 여행을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여생을 마친다. 암허스트는 청교도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 큰 영향을 미치던 고장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그녀의 시에서 죽음의 주제에 끊임없이 드러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디킨슨의 가정과 주변사람들까지 청교도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디킨슨은 죽음을 내세의 것으로 여기고 종교적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 당시의 종교적 관점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품고 그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디킨슨에게 죽음은 피할수 없는 현실 그 자체이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고통스러운 상실의 경험일 뿐이다.

디킨슨이 종교적 회의를 느낄 무렵 19세기초반에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또한 에머슨(Ralph Emerson)의 초월주의가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 사상은 디킨슨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에머슨의 작품을 통해서 초월주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에머슨의 주요 작품인 『자연』(Nature)에서 청교도주의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왜 우리는 우주와 직접적인 본연의 관계를 향유해서는 안되는가? 왜 우리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것이 아닌 자기성찰의 시와 철학을,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우리의 종교를 가져서는 안되는가?<sup>6)</sup>

에머슨은 이 처럼 청교도의 형식주의와 전통을 전면적으로 공격한다. 이러한 에

5) Thomas H. Johnson, *Emily Dickinson: An Interpretive Biography*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P, 1955), p. 232.

6) Ralph Waldo Emerson, *Selections from Ralph Waldo Emerson: An Organic Anthology* ed. Stephen E. Whicher,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0), p. 12.

머슴의 작품을 접하면서 디킨슨은 자연스럽게 초월주의의 자기충족과 자기 신뢰의 태도를 갖게 된다.

디킨슨이 죽음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그녀가 살던 집 앞에 공동묘지가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남북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무덤에 묻히는 장례행렬을 수도 없이 보며 자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결정적으로 소중한 친구들과 지인과 친척들의 죽음을 지켜본 것이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생각 하게 된 계기가 된다. 디킨슨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고 진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 편지나 시에 중심적인 주제로 나타난다. 특히 어린 적 소중한 친구였던 소피아 홀랜드(Sophia Holland)의 죽음은 그녀의 임종을 상세하게 지켜본 그녀에게 죽음에 대한 강렬한 인상과 상실의 고통을 안겨준다. 디킨슨이 경험한 또 다른 친구의 죽음에 대한 충격은 다음편지에도 드러나 있다.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나에게 불멸을 가르쳐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가까이—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곧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스승은 세상을 떠났고—수 년 동안 책만이 나의 친구였습니다. 7)

위 편지에서 “불멸을 가르쳐준 친구”라고 한 뉴튼(Benjamin Newton)의 죽음이 디킨슨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실의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드러난다. 그는 디킨슨에게 에머슨의 글을 소개해준 사람이며 문학의 관심을 공유하던 친구이다. 이밖에 스승이었던 험프리(Humphrey)의 죽음, 워즈워드(Wadsworth) 목사 등 지인들과 디킨슨의 부모님, 조카 길버트(Gilbert)의 죽음 등 을 수없이 목격했다. 이러한 결과로 디킨슨은 세상을 뜰 때까지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사색을 하게 되고 그녀의 편지와 시에는 이러한 아픔과 상실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누구나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사이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이자 신비의 영역이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과의 단절이며, 피하고 싶다고

7) 본 논문에 실린 편지는 다음의 원문 내용과 일치한다. *Emily Dickinson, The Letters of Emil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Mass: Havard UP. 1958). 이하 인용은 Johnson이 사용한 고유번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L을 붙임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운명적인 것이다. 죽음에 대한 관심은 불멸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불멸의 세계를 보고자 한다. 하지만 불멸 또한 죽음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정의를 내릴수 없기 때문에 불멸은 존재가 불투명하고 시작점과 도착점도 모호한 두려움이자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디킨슨은 더욱더 불멸의 바로 전 과정이라 여겨지던 죽음을 파헤쳐 그것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려 한다. 또한 부정확한 존재인 죽음과 불멸에 도전하여 맞부딪혀 친숙해지려 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려 무던히도 노력한다.

이처럼 그녀에게 죽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죽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쓰인 그녀의 시는 죽음을 통해 내세나 천상에 대한 종교적인 찬양이나 천상에서 이루어질 영원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삶, 즉 현실에서 죽음을 직접 대면하고 실체를 밝혀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영원의 불멸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집중된다. 즉, 삶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추구하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죽음의 연속선상에 있던 불멸을 어떻게 추구하고자 하는지가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킨슨의 죽음과 불멸의 주제가 드러나 있는 시를 중심으로 두 주제의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죽음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불멸을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 관찰하는 시와 시인의 죽음을 상상력을 통해 간접 체험하는 시로 나누어 두 주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죽음의 인식 후에 불멸을 어떻게 인식하고 삶과 죽음의 관계를 전체적 삶의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랑·자연·자아의식·예술적 관념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승화되는지를 관련된 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죽음의 실체와 경험

디킨슨에게 있어서 죽음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직·간접적 경험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인식의 결과이다. 그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많은 죽음을 목격한다. 특히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디킨슨에게 상실감과 슬픔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더욱더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더불어 그녀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죽음은 그녀를 자연스럽게 죽음의 관찰자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외에도 집 주변의 무수한 공동묘지가 있어 장례행렬과 장례식을 빈번하게 목격했던 것이 디킨슨에게 남다른 죽음의 경험을 만들어 준다.

디킨슨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경험은 인간으로서 가장 풀기 어려운 죽음의 문제에 맞추듯 함으로써 예술가로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바탕이 된다. 말하자면 죽음은 그녀의 삶의 과정에서 그녀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만약 디킨슨의 시와 편지에 반복되는 죽음의 주제가 근원적으로 신경증적인 것에 기인한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성숙한 시인과 사색가로서의 그녀의 관심은 실존적 현상으로서의 죽음과 핵심적 종교적 신비로서의 죽음이었으며, 죽음은 거의 임상 의사와 철학자의 객관적 태도로써 탐구되고 사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8)

디킨슨은 주변에서 많은 이들의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의 장면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시에서 죽음을 해부하듯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디킨슨은 죽음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도 죽음의 공포나 불안에 동요되지 않고 실존적 현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죽음의 신비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내세적 구원과 영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지상 속에서 영원을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디킨슨은

8) Richard B. Sewall, ed. *Emily Dicki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 p. 80.

이러한 죽음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예술가로서 죽음을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며, 나아가 자신의 의식의 영역을 통해 죽음을 상상해 보고 경험한다.

## 1. 관찰을 통한 죽음의 실체

디킨슨의 방대한 시는 여러 주제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녀는 모든 인간의 삶을 사랑과 죽음 이 두 가지로 생각한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조카 길버트(Gilbert)를 잃었을 때 애통함을 표현했던 말 속에 드러나 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고통이 마침내 그 문을 열고 그의 조부의 발치에 있는 작은 무덤에 달려갔다. 이 모든 것과 더한 것, 무엇이 더 일단 말인가? 사랑과 죽음이외에 있다면 말해보라 내게.<sup>9)</sup>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이와 같이 표현한 디킨슨의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체험은 그녀의 시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디킨슨의 죽음의 시는 대부분 이러한 죽음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탐구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디킨슨은 거의 병적일 만큼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미지의 세계의 일원이 되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열망으로 생사의 갈림길의 순간에 그녀의 관심을 집중시켰다.<sup>10)</sup>

디킨슨은 죽음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막연한 추측으로 표현하지 않고 모든 각도에서 죽음의 현상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죽음을 인식 하고자 했다. 이처럼 죽음을 사실적·객관적으로 파악하려했던 것은 당시의 실증적 과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법칙에서 수수께끼가 나오고, 수수께끼에서 감정적인 해결로 나아간다. 문제는 철학에 의해서보다는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 더 많이 해결된다. 에밀리는 죽음을

---

9) Ibid, p. 11.

10) Anderson, p. 225.

응시한다. 태양이 뜨면서 안개가 사라지듯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관찰한다. 11)

이렇듯 죽음의 외적양상을 관찰할 때는 그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실험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는 점점 사라지고 미스터리처럼 베일에 싸여진 그 실체는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디킨슨 앞에 나타나나게 된다. 앤더슨 역시 디킨슨의 죽음에 관한 시는 죽음에 대한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추구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요한 집착은 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2)</sup> 디킨슨의 실체는 더욱더 과정은 먼저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면서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섹시적 육체적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디킨슨이 관찰하는 죽음의 현상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얼음의 이미지나 돌처럼 결정화된 이미지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sup>13)</sup>

다음의 시에서 디킨슨은 죽어가는 육체적인 양상을 냉동과정으로 인식하여 죽음을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부각시키고 있다. 타인의 죽음에서 관찰되는 죽음의 현상이 얼음과 돌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따뜻했었지- 처음에는- 우리처럼  
냉기가 이곳을 지나갈  
때까지는- 유리잔에 맺힌 서리처럼-  
장면이 모두-사라질 때까지는

이마는 돌이 되었고-  
손가락은 너무나 차가워져서  
통증은 없고 -그리고 스케이트장처럼  
바빠 움직이던 두 눈도 - 얼었다-

'Twas warm-at first-like Us-  
Until there crept upon

11) Henry W. Wells, *Introduction to Emily Dickinson* (Chicago: Hendricks House, 1947), p. 95.

12) Anderson, p. 228.

13) David T. Potter, *The Art of Emily Dickinson's Early Poetry* (Cambridge: UP, 1966), p. 25.

A Chill-like frost upon a Glass-  
 Till all the scene-be gone  
  
 The forehead copied Stone-  
 The fingers grew too cold  
 To ache-and like a Skater's Brook-  
 The busy eyes-congealed- (P. 519)<sup>14)</sup>

디킨슨은 죽음의 현상을 “냉기”, “서리”, “차가움”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과 주검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것”으로 지칭되고 있는 주검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다. 타인의 죽음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처럼 따뜻한 존재이다. “온기”가 있을 때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 차가움과 딱딱함이 자리하게 된다. 감각도 없고 더 이상 하나의 통일된 형체가 아닌 신체의 각 부분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람과의 모든 연관성과 유사성을 상실해버린다. 디킨슨은 타인의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대면하는 순간에 죽음의 과정을 육체가 “사물”처럼 싸늘하게 굳어 식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제 육체는 완전히 응고되어버린 냉동체 처럼 정지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연에서 죽은 사람의 외부적 모습이 “돌로 결정화되는” 과정은 죽음이 삶의 순간을 결정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디킨슨에게는 죽음이란 삶이 결정화되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보석의 가치는 그것의 성분에 있지 않고 결정화에 있다. 다이아몬드조차 주로 탄소로 이루어지며, 이 불가사의한 변형 안에서만이 우리의 용광로의 검은 석탄과 구별된다. 그러나 정신적인 사람은 은혜로운 결정화를 통해 신성한 빛을 반사하는 보석이 되고.<sup>15)</sup>

그녀에게 죽음의 의미는 삶의 과정에서 죽음을 통해 보석처럼 결정화되어 가는

14) 본 논문에 실린 모든 시는 다음의 원문내용과 일치하다. Emily Dickinson. *The Complete Poem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82) 이하 인용은 Johnson이 사용한 고유번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앞에 P를 붙인다.

15) Sewall, p. 456.

과정인 것이다. 디킨슨은 죽음이라는 외부적 현상을 통해 죽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킨슨은 죽음의 외부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시인의 그러한 끈질긴 추구를 정당화시키고 결국에는 시인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결론으로 이끌어간다.<sup>16)</sup>

다음의 시에서는 죽음을 물리적 시각이 상실되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나는 죽어가는 눈동자를 보았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이-  
이리저리 굴리면서 방을 둘러보는-  
그리고는 이내 시야가 흐려지고-  
안개로 더욱 희미해지면서-  
그리고는 굳게 닫혀 버렸지  
보았던 축복이-  
무엇인지 드러내지도 않은 채로

I've seen a Dying Eye  
Run round and round a room-  
In search of something-as it seemed-  
Then Cloudier became-  
And then-obscure with Fog-  
And then-be soldered down  
Without disclosing what it be  
'Twere blessed to have seen- (P. 547)

디킨슨은 “죽어가는 사람의 눈” 즉, 죽어가는 사람의 눈동자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언급한다. 죽음을 추측에 의해 단정내리지 않고 죽었다는 묘사를 “보았던 축복이- 무엇인지 드러내지도 않은 채로” 라고 표현한다. 디킨슨은 죽어가는 이가 찾고 있는 것이 내세의 영원성을 얻게 되는 “축복”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눈동자는 “구름이 낀 듯”이 안개와 함께 몽롱해 지며 “눈”이 보았던 영원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눈꺼풀이 의지와 상관없이 닫혀 죽음을 맞이한다. 그녀는 “납이 녹아내려가는”듯이 죽어가는 시선에서 죽음의 이

16) Ibid, p. 165.

미지를 포착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고도의 의식을 얻는다고 생각했기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눈의 움직임과 반응을 관찰해 나감으로써 죽음의 신비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 한다.<sup>17)</sup>이처럼 타인의 죽음을 관찰하면서 소멸과 상실이라는 죽음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디킨슨은 이러한 실체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자체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인간의 유한성에서 죽음을 인식하고자 함을 다음 시에서 제시한다.

당신은 떠나서  
결코 돌아오지 아니 하려고 하시기에  
그리고 나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의 가신 길을 바라다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에,  
이 순간은 유한성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Because that you are going  
And never coming back  
And I, however absolute,  
May overlook your Track—

Because that Death is final,  
However first it be,  
This instant be suspended  
Above Mortality— (P. 1260)

디킨슨에게 죽음의 순간은 삶의 유한성 위에 “매달려있는” 순간이다. 죽음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죽음 후의 순간이 아니라 죽음 바로 그 순간에 존재의 “유한성에 매달려 있는”것을 깨닫는 것이다. 디킨슨은 존재의 유한성 자체는 죽음의 의미를 실존으로 연결시켜 현상세계를 일상사로 확장시켜놓고 있다고 본다.<sup>18)</sup>

17) Ibid, p. 168.

18) Sharon Cameron, *Lyric Time. Dickinson and the Limits of Genre* (Baltimore: Johns Hopkins UP,

디킨슨은 또한 죽음은 삶의 유한함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 중 하나처럼 인식 될 수 있는 것으로 관찰 하고 있다. 다음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삶과 죽음사이의 순간을 포착하여 나타낸다.

그녀가 살아있던 마지막 밤은  
임종이 없었다면 — 예사로운 밤이었습니다.  
임종은 우리에게  
세상의 의미를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저 세상으로 떠나기를 기다릴 때  
마침내 죽음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짧은 순간이었기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우리의 영혼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 last Night that she lived  
It was a Common Night  
Except the Dying — this to Us  
Made Nature different

We waited while she passed—  
It was a narrow time—  
Too jostled were Our Souls to speak  
At length the notice came. (P. 1100)

이 시는 실제로 디킨슨이 이웃사촌이었던 디키(Laura Dicky)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쓴 시이다. 디키가 죽은 날이 “평범한 밤”이라고 표현하면서 삶과 죽음의 차이를 사소한 것으로 좁히고 있다. 이로 인해 죽음은 그저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처럼 인식되어진다. “그녀”에게 엄습해오는 죽음은 순식간에 범접해온다. 그래서 디킨슨은 삶과 죽음의 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언급한다. 죽음이라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들”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순간은 시간의 측면에

---

1979) p. 147.



서 아주 근소한 간격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근소한 간격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죽음은 삶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녀의 관심은 육체적인 변화에 있었다.<sup>19)</sup> 다음의 시를 통해 죽음에 의한 “신체의 변형”<sup>20)</sup>을 시각적·촉각적·청각적·사실적·세부적으로 묘사한다.

기운 없는 이 발은 얼마나 자주 비틀거렸던가.  
납땀된 입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  
해봐요— 당신이 그 무시무시한 못을 움직일 수 있는지 —  
해봐요— 당신이 그 강철 문고리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그렇게 자주 뜨거웠던— 차가운 이마를 어루만져봐 —  
그 생기 없는 머리카락을 — 손질하고 싶으면 —  
끌무도— 더 이상— 낄 일 없을—  
그 견고한 손가락을 들어올려— 움직여봐

굵든 파리들은 웅웅거리네— 침실 창문 위에—  
태연히 용감하게— 태양은 얼룩진 창문을 뚫고 빛을 비추네 —  
두려움 없이 — 거미줄은 천장에서 흔들거리고—  
게으른 주부는— 데이지 속에 — 누워있네!

How many times these low feet staggered  
Only the soldered mouth can tell—  
Try— can you stir the awful rivet—  
Try— can you lift the hasps of steel!

Stroke the cool forehead— hot so often —  
Lift — if you care — the listless hair —  
Handle the adamantine fingers  
Never a thimble — shall wear —

---

19) Pickard, p.101.

20) Pickard, p.165.

Buzz the dull flies — on the chamber window—  
 Brave— shines the sun through the freckled pane—  
 Fearless — the cobweb swings from the ceiling—  
 Indolent Housewife — in Daisies—lain! (P. 187)

이 시에서는 주부의 시신과 그것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을 통해 죽음의 실체를 인지한다. 에너지·소리·빛·움직임과 같이 역동적이고 생명의 느낌을 갖게 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금속, 돌, 등의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로 죽음과 삶의 상반되는 이미지들을 대조시킨다. 1연의 “납땀된”, “대갈못”, “강철”의 이미지는 시체에 금속성을 부여하여 차고 냉담하고 단단한 죽음의 성질을 보여준다. 삶을 시도해 보라는 절규에도 입이 못으로 뻘뻘되어 있기에 응답할 수 없고 눈은 강철로 된 문고리와 같아서 뜯 수조차 없다.

2연에서는 촉각과 청각 시각을 사용해서 생명이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는 과정과 상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촉각은 “차가운 이마”와 “생기 없는 머리카락”속에 소멸되고, 청각은 파리들의 둔한 웅웅거림 속으로 사라지고, 시각은 죽음의 방에 난 창을 통해 스며드는 얼룩진 햇볕 속으로 꺼져 간다. 즉 촉각, 청각, 시각의 본능적 감각의 상실이 곧 죽음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서는 데이지 속에 누운 “게으른 주부”는 삶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주부에게서 빠져나가 미동의 상태에 있는 죽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게으른”이라는 의미는 삶과 정반대되는 요소로서의 죽음을 나타낸다. 이 주부는 2연에서 보듯이 현세에서는 참으로 부지런 했던 존재이다. 그런 가정주부가 이제 매장되어 관속에 누워 게으른 주부가 집안일에 소홀하듯, 어떤 집안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아늑하고 깔끔히 잘 정돈되었던 방은 파리가 웅웅거리고 유리창에는 희뿌연 먼지가 서려있고 천정에는 거미줄만 사방에 있을 뿐이다. 디킨슨은 가정주부의 평소 부지런했던 모습과 죽은 뒤의 지저분한 집안을 가정생활의 이미지리를 사용하여 대조시킨다. 이처럼 엄숙하고 추상적인 주제인 죽음을 다룸에 있어 흔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가정의 일상적 이미지리를 사용하여 실제 경험의 좁은 영역으로부터 중요한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 디킨슨의 특징이다.<sup>21)</sup> 루커스(Lucas)는 디킨슨이 시신의 육체적 양상을 해부하듯 밀도 있게 다

룬 점에 대해 “영안실 묘사의 여류대가”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했다.<sup>21)</sup>

디킨슨은 죽음의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해냄으로써 그에 대한 징후나 복선적인 부분을 찾아내고자 한다. 임종의 순간과 주검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더불어 죽음이 살아 있는 자에게 불러일으키는 파장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많은 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혹은 방금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임종의 장면을 다룸으로써 죽음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그녀의 시 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죽음이 가져다주는 여파를 묘사한 시도 있다. 다음의 시는 죽음을 관찰하여 얻은 이미지에서 고통을 관찰해낸 시이다. 디킨슨은 고통이 최절정으로 도달하는 순간과 그에 이은 죽음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고통의 표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진실 된 것임을 알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런 경련을 흉내 내지 않으며,  
임종의 고통도 흉내 내지 않습니다 —

눈이 한순간 흐려졌고 —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꾸며내는 일은 불가능 합니다  
거친 고뇌로 생겨난  
이마 위의 구슬땀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I like a look of Agony,  
Because I know it's true —  
Men do not sham Convulsion,  
Nor stimulate, a Throe—

The Eyes glaze once — and that is Death—  
Impossible to feign  
The Beads upon the Forehead

---

21) Anderson, p. 230.

22) Dores Dyer Lucas, *Emily Dickinson and Riddle* (Dekalb: Northern Illinois UP, 1969), p. 65.

그녀는 “고통의 표정”이 진실이기에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사람들은 고통스런 경련을 흉내내지 않는다. 고통은 표정으로 표출되기에 숨길수도 통제 할수 없어 진실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이마에 생겨난 구슬땀은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며 고통이 지나가며 남기는 흔적이기에 값진 것이다. 디킨슨은 최절정의 고통이 막 지나간 뒤의 순간을 포착한다. 죽을 때 느끼는 고통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며, 그런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살아 있음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마지막 순간이다. 이 순간은 육체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이 함께 만나 공존하는 순간이기도하다. “눈”의 이미지를 통해 열린 동공이 서서히 축소됨을 보여 줌으로써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마지막 신호임을 보여준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죽음을 연상시킨다. 그녀에게 고통이란 삶에서 가장 정직한 표현이며 고통을 느낌으로써 살아있음을 느끼며 아울러 삶에 대한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디킨슨은 유한한 존재에서 인식되는 고통이란 삶의 과정에서 갑작스런 위기가 오는 죽음이라 여긴다. 그녀는 인간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피할수 없는 보편적 삶의 과정으로 수용할 때 삶의 한 과정속의 죽음으로 인식될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현실로 이어지는 통로인 것이다.

디킨슨에게 적어도 죽음은 현실의 상징으로, 죽음은 고통스런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의 끝에서 그 단계를 통과하면 죽음은 여전히 현실로 통하는 통로이고 그래서 삶을, 기쁨을, 황홀의 순간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남아있다. 영혼의 위기인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새롭고 보다 나은 존재의 영역 내에 정착시킨다.<sup>23)</sup>

죽음이란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통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디킨슨은 이 과정을 지나칠 때 마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또한 타인의 죽음을 통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인격의 상실로 파악하고 물체의 특성으로 죽음을 관찰하고 있다.

---

23) Wells, pp. 98-99.

잠보다 더 고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은밀한 방에는!  
그것은 작은 가지를 가슴에 닮고 있으며 —  
이제 더 이상 그것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There's something quieter than sleep  
Within this inner room!  
It wears a sprig upon its breast —  
And will not tell its name ( P. 45 1연)

죽음은 극도로 고요한 “잠”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중성 대명사 “그것”과 “어떤 것”을 사용하여 인격이 상실되어있는 시신의 특징으로 연결 하고 있다. 시인은 시종일관 고요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디킨슨은 주검의 관찰을 통해 죽음의 실체를 벗기려 하지만 시신이 주는 일방적인 침묵으로 인해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내고 싶지만 조금 전까지도 살아있던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결국 디킨슨은 “나는 그것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한다.”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인격체의 죽음은 같은 공간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린다. 디킨슨의 죽음에 대한 관찰은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이다.<sup>24)</sup>

그러나 디킨슨의 주요관심사는 시신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시신으로 변하는 순간에 죽음의 실체를 느끼고 어떻게 인지하느냐이다. 따라서 디킨슨은 다음의 시에서 타인의 죽음이 장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객관적·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즉,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중의 하나로 파악한다.

앞집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막-  
나는 그런 집이 - 의례 갖는-  
무감각한 표정에서 그것을  
알아냅니다

24) Thomas W. Ford, *Heaven Beguiles the Tired: Death in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Alabama: Alabama UP, 1968), p. 110.

이웃집 사람들은 바빠 드나들고  
의사들은 - 운전자들이 실어 나르고  
창문은 콩깍지처럼 열립니다 -  
기계적으로 - 갑작스럽게 -

There's been a Death, in the Opposite House,  
As lately as Today—  
I know it, by the numb look  
Such Houses have — always —

The Neighbors rustle in and out  
The Doctor — drivers away—  
A window opens like a pod—  
Abrupt — mechanically — ( P. 389)

죽음을 죽은 자가 아닌 이웃집으로 확대하여 관찰하고 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을 명백하게 본적은 없지만 이웃집을 둘러싼 죽음의 분위기를 이런 집이 의례히 가지는 무감각한 표정을 통해 파악한다. 무감각한 표정은 죽은 시신의 침묵과도 일맥상통한다. 죽음이 보여주는 침묵과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들의 “걸음걸이”를 통해 죽은이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의 눈물 하나없이 분주한 움직임의 행동뿐인 기계적·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의사”나 “운전자”들은 죽은 사람의 장례절차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듯 일상적인 일처럼 기계적으로 절차를 따를 뿐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의식을 통해 죽음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태도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임을 보여준다.

디킨슨은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의 외부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물리적 소멸과 상실이라는 죽음의 속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죽음에 뒤따르는 고통을 그자체로 수용하는 역설적인 중요성을 통해 죽음을 삶의 과정의 하나의 사소한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며 삶의 끝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 디킨슨은 죽음의 부동성과 의식의 소멸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지상태에서 시간의 개념을 지움으로써 무

시간 속에서 의식의 무한한확장을 통해 죽음을 광활한 우주의 순환속의 삶의 한 과정이자 일부분으로 받아드린다.



## 2. 상상을 통한 죽음의 경험

디킨슨은 죽음을 실존적 현상으로 인식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적으로 경험한다. 디킨슨은 죽음의 경험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배경을 만들고 인물을 설정한다.<sup>25)</sup> 디킨슨은 실존적 현상 속에서 죽음의 속성과 가능성을 시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시 속에서 죽음의 속성인 소멸·상실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 속에서 한계를 느끼기 보다는 상상을 통해 죽음을 예견해 봄으로써 자신의 의식이 죽음너머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의식의 확장은 시인으로서 예술적 순간을 창조하는 순간으로 작용한다. 디킨슨은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무한한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의 경험 속에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식의 확장을 통해 영원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다음의 시에서 디킨슨은 죽음을 친절한 신사로 그리면서 죽음을 더욱더 친근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죽음과의 여행을 통해 영원성을 인식한다.

내가 죽음을 위하여 멈춰줄 수 없었기에  
그가 친절하게도 나를 위해서 멈춰주었다.  
그 마차는 우리자신과  
불멸을 실었다.

우리는 천천히 달렸다— 그는 서두름을 알지 못했다.  
그의 정중함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나의 일과 여가 모두  
제쳐놓았다.

Because I could not stop for death—  
He Kindly stopped for me—  
The Carriage held but just Ourselves—  
And Immortality.

---

25) Sewall, p. 717.



We slowly drove—He knew no haste  
And I had put away  
My labor and my leisure too,  
For His Civility— (P.712 1,2연)

시인은 죽음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인이 죽음을 위해 멈출 수 없기에 죽음이 “친절하게도” 인격을 가지고 나를 위해 “멈추어”주었기 때문이다. 디킨슨은 죽음을 “정중함”을 가진 신사처럼 인식함으로써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생활을 제쳐놓고 죽음과 기꺼이 동행하고 있다. 죽음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그 마차에 타게 되고 그녀는 그 순간 안에는 “영원”이라는 동행자와 있음을 발견한다. “멈추어버린다”는 것은 흘러가는 유한의 시간이 끝나 버렸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순간의 정지가 불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디킨슨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동행하는 순간 영원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연에서는 죽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삶의 순환과정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휴식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교를 지났고-  
오곡이 응시하는 들판을 지났고-  
지는 해를 지나왔습니다-

We passed the school where Children strove  
At recess— in the Ring—  
We passed the Fields of Gazing Grain—  
We passed the Setting Sun— (P. 712 3연)

“나”는 죽음과 동행하여 마차를 타고 내가 거닐던 일상의 삶의 장면을 지나쳐 간다. 시간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장면들을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스치듯 된다. 이때의 일상의 장면들은 3단계의 순서를 거친다.. 첫 번째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때”인 어린 시절, 두 번째는 “곡식의 들판”으로 묘

사되어진 성인시절, 세 번째는 “해질녘”으로 묘사되어지는 노년시절이다. 디킨슨은 현세를 등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등 뒤로 보이는 지난 삶의 장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시간적으로도 한낮의 학교에서 해가 질수록 점점 어두워진다. 여기에는 삶의 주기가 담겨 있다. 유년시절의 청년에서 성년으로 다시 노년의 쇠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마차는 이 모든 삶의 주기를 지나 마지막으로 일몰을 지나치려 하는데, 그 찰나는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무시간의 순간인 것이다.

아니 오히려 해가 우리를 지나쳐 버렸다.  
이슬이 스며 차갑고 떨리는데  
얇은 명주와 겹옷과  
명주 망사와 솔만을 걸쳤기에—

Or rather—He passed Us—  
The Dews drew quivering and chill—  
For only Gossamer, my Gown—  
My Tippet—only Tulle- (P.712 4연)

4연에 “오히려 해가 우리를 지나쳐 버렸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우리를 지나쳐 갔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시간을 정복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인간을 지배하여 죽음에 순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연에서는 태양이 있는 낮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은 밤의 세계로 바뀌어있다. 몸은 얇은 “명주겹옷”과 “명주 망사”만 걸쳐 있기 때문에 “이슬”이 끌며 잡아당기는 듯 추위를 느낀다. 3연까지의 밝음·생기·따뜻함·온기 등은 지금은 어둠·냉기·정지·한기등의 대조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있다.

우리는 땅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집 앞에서 멈추었다.  
지붕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박공은 땅에 묻혀 있었다.

We paused before a House that seemed  
A Swelling of the Ground—

The Roof was scarcely visible—

The Cornice—in the Ground— (P.712 5연)

“땅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집”에서 “집”은 무덤을 나타내며 동시에 삶에서 죽음을 거쳐 불멸의 세계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1연에서 친절하게 내 앞에서 멈춰주었던 그 정지는 유한적 시간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반면 두 번째 무덤 앞에서의 정지는 죽음에서 영원의 불멸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영원으로 나아가기전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의미이다. 죽음을 극복해야만 궁극적인 불멸로 향할 수 있기때문에 무덤 앞에서의 정지는 불멸로 가는 통로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무덤이 최종목표가 아니라면 그녀가 그렇게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때 이후로 수세기가 지났지만  
처음에 말 머리들이 영원을  
향해 있다고 생각되던  
그날 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Since then—'tis Centuries—and yet  
Feels shorter than the Day  
I first surmised the Horses' Heads  
Were toward Eternity— (P.712 6연)

마지막 연에서 최종목적지는 바로 영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덤 앞에서의 일시적 정지는 영원의 삶의 움직임을 보여줄 신호이기도 하다. 이순간 죽음이 불멸로 전환되어 영원과 불멸이 동일시된다. “말 머리들”은 영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의식을 보여준다. “말머리들이 영원을 향해 서있는” 순간, 움직임을 멈추어 물리적 시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어 영원처럼 인식된다. 결국 이 시에서 마차는 전진과 연속성을 상징하며, 그녀가 마차를 타고 경험하는 영원은 죽음의 경험과 동시에 맞물려 구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마차의 여행을 통해 죽음이란 삶의 연속과정 속에 일시적인 정지의 순간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다음의 시에서 디킨슨은 자신의 상상적 죽음을 경험한다. 임종의 순간을 지켜 보는 이와 임종을 맞이하는 자아의 의식사이에 한 마리의 파리가 등장한다.

나는 파리 한 마리 뒹뒹대는 소릴 들었다—  
내가 죽었을 때에— 방안의 정적은  
대기의 정적 같았다—  
폭풍사이에 이는—

주변의 눈은— 너무 울어 말라있고—  
숨결은 점점 긴장감을 더했다  
죽음의 엄습에 대비하여, 왕이  
목격되는 때에— 방안에서—

내가 나의 유품들에 서명하고  
양도할 내 재산을  
정리하자— 그 때  
거기에 날아든 파리 한 마리

비틀거리며 뒹뒹대는—  
파리의 푸른 나래소리가—  
빛과—나—사이를 방해 했습니다  
창들이 회미해지고—그리고  
나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I heard a Fly buzz—when I died—  
The Stillness in the room  
Was like the Stillness in the Air—  
Between the Heavens of Storm—

The Eyes around— had wrung them dry  
And Breaths were gathering firm  
For that last Onset— when the King  
Be witnessed— in the Room—

I willed my Keepsakes—Signed away  
What portion of me be  
Assignable—and then it was  
There interposed a Fly—

With Blue — uncertain — stumbling Buzz—  
Between the light —and me—  
And then the Windows failed — and then  
I could not see to see— (P. 465)

1연에서 화자는 유언을 마치고 숨이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파리 한 마리의 뽁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여기서 파리의 움직임은 화자의 육체적 무기력감과 대조를 이룬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자 온 정신을 모아 파리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려는 화자에게서 우리는 삶에 대한 집착을 느낄 수 있다. 화자의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파리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을 갈구하는 화자 사이의 미묘한 갈등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2연에서 디킨슨은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침묵이 흐르는 방 속에서 가족들은 이제 “너무 울어 메마른 눈”으로 영혼을 마중 나올 “왕”의 출현을 보려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디킨슨은 시에서 죽기 바로직전까지의 심리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임종을 맞는 인간의 무기력감과 인간의 모든 세속적인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죽음의 파장에 대해 인식한다.

그러나 3연에서 죽어가는 자는 임종객들의 기대와는 달리, 불멸에 대한 언급이나 천국으로 인도할 “왕”이 왔음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재산분배를 하고 양도를 확인하는 서명을 할 뿐이다. 이로써 화자는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 세상과 결별한다. 이중요한 순간에 “파리” 한 마리의 뽁뽁거리며 날아든다. 모든 정신이 파리 소리에 집중되어짐에 따라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그 정도가 극에 도달하게 된다. 파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눈동자 위에 남겨지는 삶의 마지막 움직임의 표상이다. 그러나 빛을 삶의 마지막으로 염두해 볼 때 한 마리의 파리는 빛이라는 삶의 마지막 의미를 차단시켜 버리는 죽음의 표상이기도 하다. 디킨슨은 이처럼 한 마리의 파리를 대상으로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적인 현상으로

연결시킨다.

파리는 외부세계의 구체적 사물로써 살아있는 집파리로서 뿐만 아니라 의식의 죽음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죽음은 사실상 물질적인 현상계의 존재의 흔적을 지울 것이다.<sup>26)</sup>

마지막 4연에서는 화자의 감각과 의식이 소멸되어 간다. 그녀의 지각능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감각이 혼돈된 상태를 “푸른 나래소리”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준다. 파리의 웅웅거림이 시적자아와 빛 사이의 거리를 가로 막고 결국에 시각의 창문이 닫히면서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져 “보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인식의 소멸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엄두해 볼 때, 디킨슨은 죽음의 순간에 천사들의 합창소리를 듣고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청교도인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한다. 그녀가 들은 소리라고는 파리들은 소리라고는 파재 뿐이다. 세상은 불멸에 대한 가능성이나 비전 없이 파리의 소리가 커질수록 점점 그녀의 시각으로부터 멀어져 갔리의 소리이란 불멸로 에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감각이 소멸됨을 의미할 뿐이다.

다음 시에서 디킨슨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맞이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한다.

대관식이 거행되는 어느 오후  
지고한 존재가 느린 행차를 한다  
아무도 이 보랏빛 행차를 피할수 없고  
이 관을 면할 길 없도다!

이 대관식엔 으레 마부와 마차가 따르고  
국가와 군중이  
마을엔 또한 종소리가 따르도다!  
화려한 행차가 진행될 때

26) Miller E. Budick, *Emily Dickinson and the Life of Language: A Study in Symbolic Poetic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85), p. 169.

따르는 행렬의 저 위엄!  
행렬이 멈출때의 저 아낌없는 시중!  
다시 나아갈 때  
모자를 들어 보이는 저 수많은 충성의 무리들

그대와 나 비록 친하여도 우리네 소박한 문장을 제시하여  
죽음의 궁에 입궐하는 계급임을 과시할 때  
어느 관리의 행차인들 이만큼 화려할까!

One dignity delays for all—  
One mitred Afternoon—  
None can avoid this purple—  
None evade this Crown!

Coach, it insures, and footmen—  
Chamber, and state, and throng—  
Bells, also, in the village  
As we ride grand along!

What dignified Attendants!  
What service when we pause!  
How loyally at parting  
Their hundred hats they raise!

How pomp surpassing ermine  
When simple you, and I,  
Present our meek escutcheon  
And claim the rank to die! (P. 98)

“보랏빛” 색상은 이 시 속에서 군주가 입은 옷 색깔인 동시에 뉴잉글랜드의 관습의 하나로써 죽음의 의미로 매다는 매듭지어진 나비 꽃의 색상을 의미하기도 한다.<sup>27)</sup> 즉, “보랏빛”은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과 의식을 피할 수

27) Ibid, p. 217.

없다. 디킨슨은 군주를 아주 위엄 있는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그 위엄은 어느 누구도 저항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엄숙한 의식 속에서 군주를 향해 경의를 표하는 수백의 모자가 화려하고 찬란한 군주의 행진을 묘사한다. 디킨슨은 시체가 운구 될 때 사방으로 퍼져 나오는 “종소리”와 “행렬”들을 상상하고 있는데 이 “행렬”의 도착지는 바로 “죽음의 궁”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해서만 그 궁에 도달할 수 있다. 왕의 대관식의 행렬에 필요한 “보랏빛”, “왕관”, “마부, 마차”가 죽음과 동행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궁궐에 입장 할 수 있는 권한인 죽음을 선택 함으로써 모두 지고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다음의 시속에서 디킨슨은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로 관속에 누워 자신의 장례식의 풍경을 묘사한다.

나는 머리 속에 장례식을 느꼈습니다  
조객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냥 밟고—또 밟아—마침내  
감각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앉자,  
장례식은, 북소리처럼—  
계속 올렸다—내가 느끼기에  
정신이 무디어져 갈 때까지—

마침내 이성의 판자는, 부서지고,  
나는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며—  
사방으로, 세계와 부딪치고,  
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그때엔—

I felt a Funeral, in my Brain,  
And Mourners to and fro  
Kept treading— treading— till It seemed  
That Sense was breaking through—



And when they all were seated,  
A Service like a drum—  
Kept beating-beating- till I thought  
My Mind was going numb-

And then a Plank in Reason, broke,  
And I dropped down, and down—  
And hit a World, at every plunge,  
And Finished knowing —then — (P. 280 )

이 시는 장례식의 과정에 따라 자신의 영혼과 의식이 무너져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미지가 장례의 순서에 맞게 전개 되는데 집 안에서의 준비-영결의식-운구-하관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객”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이리저리 밟고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자리를 잡는다. 장례식이 거행되고 조종이 울리며 시체가 들어가 있는 관은 예배당을 나와 무덤으로 운반되어 진다. 무덤에 도착하자 관은 무덤 속으로 내려진다. 이 과정에 맞춰 시인의 정신세계도 붕괴되어 간다. 조객들의 발자국 소리에 시인의 의식은 극도로 예민해진다. 현세의 삶에 대한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발자국 소리로 인해 더욱더 강력히 느끼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남아있는 짧은 의식의 순간에 대한 절박함이 커져 감각이 터질듯하다. 장례식의 “북소리”에 정신이 마비되어가고 상여꾼들의 장화소리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영혼의 끈을 쿵쿵 짓밟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마지막 연에서 의식의 붕괴가 최고조에 달한다. “이성”이 “관”의 이미지로 묘사되어있다. 여러 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이성은 하나의 관자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사이로 의식이 빠져 나가 죽음이 그녀를 완전히 압도해버릴 정도로 소멸된다. 상상을 통해 의식의 소멸이라는 죽음의 속성을 파악한 디킨슨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보편적인 죽음이기에 대담하게 마주대하려 한다.

디킨슨에게 죽음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부딪쳐야 하는 대상이기에 더 이상 낮은 존재가 아니므로 다양한 양상에서 친숙해지고자한다. 다음의 시에서 시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심리중인 상황을 상상한다.

나는 내 선고문을—진지하게—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죄를, 지은 때와 방법들을 담은—  
최종의 선고문에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I read my sentence —steadily—  
Reviewed it with my eyes,  
To see that I made no mistake  
In its extremest clause—  
The Date, and manner, of the shame— (P. 412)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심판에서 최악의 판결을 받게 되는 장면을 상상한다. 여기에서의 최악의 판결이란 자신의 영혼이 천국으로부터 배제됨을 말한다. 자신의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그녀는 저항을 한다. 자아가 죄인, 변호사, 판사, 배심원인 동시에 법정외의 구경꾼으로 다양하게 분리되어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판결에 대한 저항에 의해 분열되는 자아를 볼 수 있다. 이 시속의 등장인물은 모두 그녀의 자아로 표현된다. 디킨슨은 죽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판결이라면 차라리 직면하여 부딪쳐 가능한 친숙해 지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부딪치게 될 죽음이 가하는 폭력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음 시에서는 디킨슨은 일상적인 생활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되돌아 보는 상상을 한다

내가 죽은 때는, 작년, 바로 이맘때입니다.  
나는 들판을 지난 때—  
소리만 듣고도  
수염 난 옥수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내가 너무 높이 있어—  
내 양말이 너무 높이 달려있게 되고  
어떤 산타클로스도 닿을 수 없어

크리스마스의 기쁨도 퇴색될 것입니다.

‘ Twas just this time, last year, I died.  
I know I heard the Corn  
When I was carried by the Farms—  
It had the Tassels on—  
.....  
And would it blur the Christmas glee  
My Stocking hang too high  
For any Santa Claus to reach  
The Altitude of me— (P. 445 )

화자는 자신의 죽은 시절을 회상한다. 가을의 추수는 모든 것이 무르익고 열매가 영근 성숙함과 쾌락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울·동경과 같은 어두운 분위기를 동시에 담고 있다. 즉, 가을은 삶의 전성기와 끝을 동시에 의미한다. 여기서 “나”는 관속에 누워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운반되어지고 있다. “나”는 관속에 누워있지만 들관울 지날때 소리만 들어도 “수염 난 옥수수”라는 것을 알수있다. 어서 나가 가을의 추수를 함께 나누고 싶지만 관속에 갇힌 존재라 그럴 수 없다. 그녀의 가족 또한 추수의 기쁨을 역시 그녀와 함께 누리고 싶어 접시를 더 내어 놓음으로써 추수감사절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려 한다. 하지만 슬픔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또한 그녀가 “크리스마스”에 걸어 놓았던 “양말”을 회상하며 현세의 소중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지금의 모습에 한탄한다.

죽은 나는 지상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회상하며 남겨진 가족의 걱정으로 현세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한다. 내세의 삶을 선택하기에 현세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기엔 소중한 추억들과 그리움이 많다. 결국 디킨슨은 죽음에 대해 내세에서의 삶이 지상의 삶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면서 현세에서의 삶에 더욱 가치를 두고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디킨슨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급·지위·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번은 맞부딪쳐야 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존재이며 그것의 연속선상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죽음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으로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현미경을 물체에 대고 관찰

하듯 다양한 관점에서 죽음을 분석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녀에게 관찰이라는 방법은 실체를 알 수 없어 모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돌파구인 것이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각하고 공포와 느끼지만 디킨슨은 지속적인 대면을 통해 죽음을 파악한다. 관찰을 통해 인식되어지는 죽음은 더 이상의 온기가 비 인격체이며, 정지의 상태로서 부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디킨슨은 모든 가능한 각도에서 죽음을 관찰하고 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전연습을 한다. 죽음을 체험해보면서 이미 겪은 듯이 회상해보기도 하고 죽음의 순간부터 무덤 속에 시체가 안치 될 때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더불어, 여인이나 친근한 존재로 의인화를 함으로써 더욱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친숙해 지려는 태도를 취한다. 다시 말해 디킨슨은 상상을 통한 죽음의 순간에 시간의 무의미성을 깨닫고 이를 통한 의식의 확장을 통해 시인으로서 추구하는 영원성의 의미를 얻게 된다.

### Ⅲ. 불멸에 대한 인식과 추구

인간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를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끝·종결이 떠오른다. 그래서 항상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인지, 아니면 죽음 이면에 또다른 세상이 있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의심을 품기도 한다. 유한한 존재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삶이 더욱더 이어지길 바라고 죽어서도 그 이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유한한 삶을 살고있는 우리는 지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영원한 불멸의 삶을 갈구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불멸 또한 죽음만큼이나 실체가 뚜렷하지않아 단정 지어 규명 할 수 없다. 그것을 경험을 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이가 없기에 우리는 상상만으로 불멸의 세계를 추측 할뿐이다.

불멸에 대한 관심은 디킨슨도 예외가 아니다.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온 디킨슨에게 불멸은 밝혀 내야할 더 큰 문제이자 수수께끼 인 것이다. 즉, 디킨슨이 죽음의 신비를 벗기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불멸에 대한 그녀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녀는 죽음이 삶과 사후세계를 이어주는 연결부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종의 장면에서 불멸에 대한 암시와, 시신의 육체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영혼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한다. 디킨슨은 상상적 죽음과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정지성과 부동성이라는 죽음의 속성을 파악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지 상태인 죽음 뒤에 연이어 이어지는 불멸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디킨슨은 죽음 이후의 불멸에 대한 탐구 또한 정지성과 부동성의 인식에서 시작한다. 디킨슨은 불멸은 삶·죽음·영원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로 보고 무덤을 불멸의 시작점으로 인식한다. 무덤은 불멸의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꼭 거쳐야할 수단인 것이다. 디킨슨은 무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공간적으로는 정지되고 밀폐되어 있는 반면, 안에는 광활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공간상으로 정지되어 있는 무덤은 의식의 확장을 구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우주의 천체적 순환과정을 인식하게 되고 죽음이란 수많은 삶의 과정 중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즉, 확장된 의식에 의해 삶에서 죽음 그리고 다시 삶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디킨슨은 확장된 의식과 끝없이 순환하는 자연·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사랑으로 자신만의 불멸을 추구하기에 이르며 이들을 시를 통해 고스란히 담아 영혼의 불멸을 추구한다.

## 1. 불멸에 대한 인식

죽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해답으로써의 불멸은 영원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그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한 인간을 완전한 시간 속에 살수있게 해준다. 디킨슨에게 불멸은 죽음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단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녀의 시와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주제이며, 그녀의 작품가운데 어떤 주제보다도 강력한 상징을 만드는 힘이 된다.

정말로 불멸은 그녀의 수많은 시와 편지에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주제였다. 상식 있는 자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킬 때조차도 그 상상의 힘에 도전하므로 그녀의 작품에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시와 산문을 통해 돌파구를 찾은 듯하다.<sup>28)</sup>

앤더슨이 언급했듯이 디킨슨은 시간의 흐를수록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짐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간의 중요성과 삶의 의미를 고찰하게 된다.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연결부호로서 인간을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계기가 된다. 디킨슨은 현재의 삶이 죽음을 거쳐 불멸로 이어진다고 파악한다.

다음 시 속에서 디킨슨은 죽음을 불멸로 들어가는 출구이자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주란 바다에서 힘들게 얻어낸—  
다이버들의 보물입니다.  
날개 단— 천사들의 마차가  
우리들과— 여행을 갑니다.—  
밤은 어두움을 잃고—

28) Anderson, p. 251.

아침을 위해 캔버스를 남기고—  
죽음은, 현세의 낮을 잃게 하고  
불멸을 알게 합니다.

Pearls are the Diver's farthings  
Extorted from the Sea—  
Pinions—The Seraph's wagon  
Pedestrian once—as we—  
Night is the morning's Canvas  
Larceny—legacy—  
Death, but our rapt attention  
To Immortality. (P.7. 2연)

“진주”가 “다이버”들이 힘들게 찾아낸 값진 보물인 것처럼 불멸이라는 영원은 인간이 죽음의 바다 속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진주”인 것이다. 즉 죽음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불멸을 안겨다 준다. “밤”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캔버스”가 되듯이 “죽음” 또한 앞으로 다가 오게 될 영원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음은 현세를 잊고 영원한 삶으로 빠져들게 하는 관문이자 통로인 것이다.

디킨슨에게 불멸은 삶·죽음 그리고 영원을 맺어 주는 중간지점과 같다. 그래서 불멸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영원하고 완전한 삶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위해 디킨슨은 자신의 은둔에 대한 길을 선택한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위기의식을 벗어나 평생 동안 자신만의 공간을 추구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더 나아가 자신만의 불멸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디킨슨에게 시작 활동은 자신의 의식을 고취시켜 진정한 자아를 획득 할 수 있는 작업 인 것이다. 디킨슨이 시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는 그녀 자신의 의식세계를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19세기의 뉴잉글랜드의 암허 세트라는 사회 속에서 여러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은둔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은둔은 자아 획득과 불멸 추구를 위해 디킨슨이 선택했던 하나의 방법이다.

시작 활동을 할 때 문학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주변의 도움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규정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디킨슨에게 자아란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존재이므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자아추구를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음의 시에서는 그러한 고통이 승리의 달콤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려진다.

성공은 성공해 보지 못한 자에게  
가장 달콤하고 값진 것  
신주의 참맛을 알기 위해서라면  
고통스런 목마름을 겪어야 하는 것

오늘 패전의 깃발을 날리는  
저 화려한 무리들 그 누구도  
승리의 의미를 그처럼  
선명히 정의할 수 없으리라

패전하여 -죽어가며-  
고통스럽게 그리고 선명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승리의 노래를  
금지된 귀로 듣는 그 병사처럼!

Success is counted sweetest  
By those who ne'er succeed  
To comprehend a nectar  
Require sorest need

Not one of all the purple Host  
who took the Flag today  
Can tell the definition  
So clear of Victory

As he defeated -dying-  
On whose forbidden ear  
The distant strains of triumph



Burst agonized and clear! (P. 67)

디킨슨은 이 시에서 즐거움과 괴로움, 희열과 절망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 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반되는 상태들 사이에 작용하는 경험의 이중성에 대한 긍정적 깨달음인 것이다. 디킨슨의 시는 이러한 삶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의 개인적 차원을 극복하여 인간 조건의 보편적 차원의 주제로 승화시킨다.

디킨슨은 경험의 양면을 보았다. 그리고 어떤 교리나 관념들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삶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움츠리지 않고 삶의 불행과 고독을 정면으로 맞아들이며 삶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하였다. 삶의 고통 역시 삶의 한 양상인 까닭이다. 디킨슨은 기대가 성취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행복이 거부되는 동안 오직 고통만이 지속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투쟁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고통도 그의 예민한 관찰을 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sup>29)</sup>

또한 디킨슨의 자아 추구는 현재의 것을 포기하는 뼈를 깎는 듯 한 고통이 필요하였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은 다음의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체념은- 고통스런 미덕-  
어떤 기대를 위해- 존재를  
놓아주는 것-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동틀 녘에-  
시력을 잃게 하는 것은-  
낮의 위대한 선조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Renunciation -is a piercing Virtue-  
The letting go  
A presence-for an Expectation-  
Not now-  
The putting out of Eyes-

29) Pickard, p. 95.

Just sunrise-  
Lest Day-  
Day's Great Progenitor-  
Outvie (P. 745)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 때문에 “현재”를 버리는 것은 마치 “시력을 잃게 하는 것”과 “살을 에는” 것과 같은 희생을 동반하는 일이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자아추구를 하고자 하는 근원과 디킨슨의 시론에 대해 홀랜드 부부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아마도 당신은 나를 비웃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전 미국이 나를 비웃겠지요!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소명은 사랑하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아침 정원의 발치의 작은 관목에 내려와 앉아 노래하는 한 마리의 새를 봤어요. 듣는 이도 없이 노래하는가? 목구멍으로부터 흐느끼며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나의 소명은 노래하는 것” 그리고는 날아가 버렸지요 (L. 269)

비록 광활한 세상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이지만 시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정원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에 몰입하여 감탄을 금치 못한다. 시인은 듣는 이가 있든 없지 않던 상관하지 않고 노래하는 새의 “소명”과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동일시한다. 디킨슨의 시작행위는 일시적인 도피처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 방법이다.<sup>30)</sup> 또한 디킨슨의 시는 모든 경계, 즉 삶·죽음, 시간·무시간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그 사이에 통로를 만듦으로서 영원히 안정된 피난처를 마련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디킨슨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덤이라는 공간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 죽음과 불멸은 서로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어 구분 지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다. 무덤은 죽음과 불멸사이에 이어진 다리와 같은 지점이기 때문이다. 무덤은 공간적으로는 매우 좁고 제한되어있지만 외양과는 달리 그 안에는 광활함과 무한함이 존재 한다.

30) Jean McClure, *Emily Dickinson & the Image of Home* (Mass: Mass UP, 1975), pp. 8-11.

31) Cameron, p. 147.

다음의 시에서 사람이 죽음 후에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관은 — 아주 좁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좁은 곳에  
천국의 시민이 들어 갈수 있습니다.

무덤은 — 폭이 매우 좁습니다. —  
그러나 사람이 보고, 살아가는  
모든 대지와 대양,  
태양보다도 더 광활 합니다 —

A coffin — is a small Domainea  
Yet able to contain  
A Citizen of Paradise  
In its diminished plane.

A Grave — is a restricted Breadth —  
Yet ampler than the Sun —  
And all the Seas He populates  
And Lands He looks upon. (P.943의 1,2연)

관의 제한되고 협소한 공간은 “그러나”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가게 될 “낙원”의 무한함과 대조를 이룬다. 무덤 또한 외향은 좁지만 대조적으로 그 안에는 방대하고 광대한 영원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무덤”이 좁은 공간을 초월하여 죽은 이들이 앞으로 살게 될 영원의 세계를 향해 거치게 되는 중간지점으로 나타나 있다. 디킨슨은 중간지점인 무덤을 거쳐 영원의 세계인 불멸로 들어 가게 된다. 무덤이란 그녀에게 불멸의 세계로 가기위한 하나의 꼭 거쳐야할 수단으로 파악된다.

무덤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정지성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의식의 확장을 구현하는 무한한 공간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앤더슨은 그녀의 시 속에서 “무덤은 야누스적 형상”<sup>32)</sup>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무덤의 이중적인 특성은 다

32) Anderson, p. 227.

음의 시에 잘 나타난다.

설화석고의 안전한 밀실—  
아침도 닿지 않고  
정오도 닿지 못하는 곳에—  
구원을 기다리는 유순한 죽은자들이  
비단 수놓은 서까래—  
돌 지붕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 위에서— 달이 차고— 세월은 장엄히 흐릅니다—  
천체는 창공에 —열 지어—  
그들의 일주를 계속하고—  
왕도—장군도—저승에 이르고—죽음에 굴하면—  
눈발 위의—소리 없는 한 점 눈송이일 뿐입니다—

Safe in their Alabaster Chambers -  
Untouched by Morning -  
And untouched by Noon -  
Sleep the meek members of the Resurrection-  
Rafter of Satin- and Roof Stone.

Grand go the Years - in the Crescent - above them -  
Worlds scoop their Arcs -  
And Firmaments - row -  
Diadems - droop - and Doges - surrender -  
Soundless as dots - on a Disc of Snow - (P. 216)

그녀는 무덤이 “안전한”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무덤은 안전성과 동시에 “설화석고 방”으로 대리석처럼 차갑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 디킨슨은 죽음이후의 세계로 상징되는 무덤에 대해 안전성과 밀폐성이라는 이중성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무덤의 안은 외부세계의 어떠한 힘의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이지만 돌 지붕으로 단단히 봉인되고 밀폐된 감금 상태의 공간이기도 한다. “죽은 자”들은 청교도적 관점에서의 “구원·부활”을 확신하고 기대

하며 무덤 속에 누워있다. 죽은 자들은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굳게 믿기에 그들에게 무덤 속에서의 일시 정지는 불멸에 대한 준비이자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인이다. 그러나 빛이 충만하며 동시에 기독교적 부활을 의미하는 “아침”과 “정오”가 그들의 무덤의 공간에 전혀 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은 부활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무의미한 기다림일 뿐이다.<sup>33)</sup>

2연에서는 과학적 관점에서 무덤 밖의 우주공간을 묘사한다. 무덤위로 장엄한 천체의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그 움직임은 자연의 주기를 따라 원을 그리며 순환한다. “세월”, “달”, “호”, “천체”의 이미지를 통해서 힘은 인간의 중심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오히려 힘은 우주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모아져 구원만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는 오직 “소멸”이 남아있을 뿐이다. 천체의 우주적 순환 속에서 인간은 중심대상이 아니기에 거대한 소용돌이 속의 의미 없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이기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왕후나 총독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인해 모두 “떨어지고”, “항복한다”.

결국 디킨슨은 이 시에서 무덤의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무덤의 정지성과 동시에 확장되어 나가는 의식을 우주적 순환과정에 비교한다. 무덤이라는 공간은 죽은 자에게는 기독교적 부활의 구원을 기다리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그 무덤은 돌 지붕과 서까래로 밀폐되어 있어 “부활”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소이다. 무덤의 정지성은 무덤 밖의 천체의 순환의 움직임과 비교되면서 결국, 죽음은 우주의 순환 속에 한 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된다. 디킨슨은 우주의 순환과정 속에서 죽음이란 한 점에 불과한 것임을 인지하며 죽음을 삶의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

다음의 시에서도 디킨슨은 무덤이라는 공간이 죽음에 의해 모든 신분과 계급이 무의미해짐을 강조한다.

무덤은 평범한 사람보다  
영웅을 위해 더 높이 있지도 않으며-  
중풍 걸린 70세 노인보다  
아이들에게 더 가깝게 있지도 않다-

33) Martha Nell Smith, *Rowing in Eden: Rereading Emily Dickinson* (Austin: Texas UP, 1992), p. 230.

이 최후의 휴식은 똑같은 위안을 준다  
거지와 그의 여왕을  
이 민주주의자의 비위를 맞춘다  
여름 오후는-

Not any lighter stands the Grave  
For Heroes than for Men-  
Not any nearer for the Child  
Than numb Three Score and Ten-

This latest Leisure equal lulls  
The Beggar and his Queen  
Propitiate this Democrat  
A Summer's Afternoon- (P.1256)

무덤 속에서는 신분이나 계급은 불필요하고 의미가 없다. 무덤은 “평범한 사람”보다 “영웅”을 위해 더 높이 있지 않다. 즉, 디킨슨은 무덤을 “거지”나 “여왕”에 게나 평등하게 똑같은 위안을 주는 휴식처로 본다. 죽음은 인간모두를 동일하게 잠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죽음이란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연속해서 순환되는 자연현상의 일부분처럼 당연하게 죽음을 받아 드려야 한다.

다음의 시에서는 죽음은 각기 다른 모든 인간을 한순간 똑같이 먼지로 만들면서 죽음이후의 세계를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

원주가 충만해지고-  
오랫동안 제한되었던 무덤은  
자신의 생명의 특권을 주장하고-  
먼지는-연결하고-그리고 살아가도록-

Circumference be full-  
The long restricted Grave  
Assert her Vital Privilege-

The Dust- connect- and live- (P.515)

그녀는 죽음이후의 세계가 완결된 “원주”의 영역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때의 “원주”는 죽음의 순간에 확장된 의식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디킨슨은 죽음의 영역에서 삶·죽음, 그리고 다시 삶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죽음의 공간인 무덤은 정지성의 공간인 동시에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되는 의식의 “원주”를 구현하는 공간이다.

디킨슨은 다음 시에서는 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와 “진리” 또한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사명 또한 죽음을 인식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나는 미를 위해 죽었다—그러나  
무덤에 적응하자마자  
진리를 위해 죽은 이가  
옆방에 누인다.

그는 “내가 왜 실패했느냐?”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미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나는-진리 때문이고—그들은 하나이니까  
우리는 형제네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로서, 밤을 맞이했다.-  
두 방 사이에서-  
어느새 이끼가 우리 입술에까지 올라와 닿고  
우리의 이름까지 뒤덮었다-

I died for Beauty- but was scare  
Adjusted in the Tomb  
When One who died for Truth, was lain  
In an adjoining Room-

He questioned softly " Why I failed"?  
"For Beauty", I replied-

"And I- for truth- Themselves are One-"  
"We Brethen, are", He said-

And so, as Kinsmen, met a Night-  
We talked between the Rooms-  
Until the Moss had reached our lips-  
And covered up- our names- (P.449)

이 시에 등장하는 “나”와 “그”는 죽은 이유에 대해서 “미”와 “진리”때문 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이므로 서로가 형제임을 확인한다. 마지막 연에서 형제로써 “나”와 “그”가 함께 밤을 맞이하고 이들의 대화가 “이끼”가 자라서 이름을 다 덮어버릴 때까지 이어짐으로써 죽음 너머에 사후의 세계까지 자신의 의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끼”라는 은유를 통해 인습적 인식의 결과물인 “이름”을 지움으로써 “미”와 “진리”가 하나가 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디킨슨은 자신의 목표이자 사명인 미와 진리의 추구는 죽음의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녀는 죽음의 순간을 삶의 끝으로 보지 않고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정지 상태에서 죽음너머까지 자신의 의식을 확대 하여 예술성을 얻는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는 알프스 산맥에 의해서 가로 막혀 나뉘진 “이태리”와 “스위스”의 이미지를 통해서 불멸과 삶의 관계를 묘사한다.

우리의 삶은 스위스에서의 삶—  
알프스가 그 장막을 거두어  
어느 낮선 오후  
우리가 더 먼 곳을 바라볼 때까지!  
매우 조용하고 — 매우 서늘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쪽에는 이태리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의—  
파수꾼처럼—  
불멸의 알프스는—  
영원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



Our lives are Swiss —  
So still - so cool-  
Till some odd afternoon  
The Alps neglect their Curtains  
And we look farther on!

Italy stands the other side!  
While like a guard between -  
The solemn Alps-  
The siren Alps  
Forever intervene! (P.80)

죽음은 알프스 산맥으로 비유되며, 지상의 삶과 불멸의 관계는 산맥에 가로놓여진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비유된다. 그녀에게 천국과 지상세계의 구별은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인지 지상에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sup>34)</sup> 알프스의 장막이 거두어지면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하나로 이어져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즉, 알프스로 비유되는 죽음만 극복한다면 이 지상의 삶은 바로 영원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과 지상의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다. 디킨슨은 즉, 연속되는 삶의 과정에 일부분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 지상의 삶과 영원의 삶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순환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다음 시에서 또한 인간은 죽는다는 인식 아래에서 디킨슨은 죽음이란 삶의 연속되는 과정속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무엇이 해가 되는가? 인간은 죽는다- 외부적으로는-  
그것은 피어린 - 진실  
그러나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죽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는- 결코 죽지 않는다-

What harm? Men die— externally-

---

34) Ibid, p. 114.

It is a truth - of Blood  
But we- are dying in Drama-  
And Drama- is never dead- (P.531)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죽음은 연속되는 삶의 드라마 속에서 전체의 흐름 속에 한 장면이 되고 있으며 디킨슨은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죽음으로 인해 삶의 드라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은 삶의 드라마에 한 장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디킨슨은 자아의 상상적 죽음과 타인의 죽음의 관찰을 통해서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소멸성, 정지성이라는 속성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직면하면서 의식의 확장을 통해 시인으로서 추구하는 비전이 순간으로 연결시킨다. 특히 디킨슨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덤이라는 공간을 통해 나타낸다. 죽음과 불멸은 서로 상호관계를 지닌다. 무덤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있는 동시에 의식의 확장을 구현하는 공간이 된다. 무덤의 속은 정지되어있지만 무덤의 밖에는 우주가 쉴 틈 없이 순환한다. 디킨슨은 자아의식을 확장시킴으로써 죽음이란 우주의 순환과정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디킨슨에게 죽음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지상의 유한성을 깨달을 수 있는 죽음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지상에서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여 의식을 확장하여 시를 통해 신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자”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살아 있는 강력한 힘을 믿게 된다. 결국 죽음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죽음을 삶의 연속되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

## 2. 불멸의 추구

디킨슨은 죽음 이후의 자신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될지에 대해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밝혀내고자 한다. 즉, 죽음 이후 자신의 거처에 대한 호기심은 천국의 갈망으로 이어진다. 다음의 시에서는 천국을 가본적은 없지만 마치 천국을 본 듯이 암허스트와 같은 조그마한 마을로 묘사하면서 그곳과 그곳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나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은 루비로 — 환희 빛나고—  
숨털이 — 걸려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만족 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 기이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I went to Heaven —  
'Twas a small Town—  
Lit — with a Ruby—  
Lathed — with Down—

Almost — contented—  
I — could be —  
'Mong such unique  
society — (P. 374 )

디킨슨은 추상적인 개념의 “천국”을 “루비”하나로 밝혀질 만한 “작은 마을”로 묘사함으로써 구체화시킨다. 마을은 정적이 감돌고 마을사람들은 “나방”으로 죽은 사람의 몸차림을 하고 있다. 디킨슨이 상상으로 가 본 천국은 나방처럼 짧은 수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을로 이 조그마한 마을도 유한한 삶의 지상과 별반차이가

없다. “천국”은 규모 또한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는 공간이어서, 이러한 작은 규모에 몇 명이나 거주 할수 있을까 의심한다. 디킨슨은 이처럼 불투명 하기만한 천국에 대해 만족할 수 없어 그들과 함께 할수 없음을 이야기 하기 이른다. 그녀는 꿈같은 비현실적인 장소보다 지상의 삶이 더 좋았기에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않고 돌아온다. 지상의 삶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며 디킨슨은 천국을 종교적 의미로 단정짓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끌어 낸다.

내가 스스로 천국의 윤곽을 그려보건대, 천국은 내가 유월에 보았던 그 어떤 하늘보다도 더 크고 푸른 하늘이며, 그 안에는 내 친구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 모든 친구들과 — 우리가 걸어가어(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천국으로 데려져 간—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 L.185)

이처럼 편지 속에서 천국을 “푸른 하늘” 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상의 생활처럼 친구들과 함께 공존 하는 곳으로 묘사한다. 디킨슨은 더불어 천국을 “푸른 하늘”이며 “하늘의 탁 트인 교실”이라는 지상의 의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천국을 좀더 친숙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불투명하고 어떠한 징후도 없는 막연한 천국을 갈망하기 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공존하는 지상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유한한 삶 속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다음의 시에서도 디킨슨은 천국을 지상에서처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곳으로 여긴다. 디킨슨은 죽음이후의 세계로서 천국에 대해 확신과 의심을 거듭하다가 지상에서의 삶이 더 좋다고 말한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기쁘다  
나의 숨을 멈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보고 싶다  
이 흥미로운 세상을!  
나는 그들이 그것을 믿어 기쁘다  
내가 결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그 위대한 가을의 오후 이래로  
나는 지상에 그것들을 남겨두었다.

I'm glad I don't believe it  
 For it would stop my breath-  
 And I'd like to look a little more  
 At such a curious Earth!  
 I'm glad they did believe it  
 Whom I have never found  
 Since the mighty Autumn afternoon  
 I felt them in the ground (P.79)

신자들은 “그것을 믿으니 기쁘다”라고 하는 반면, 디킨슨은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 기쁘다”라고 하며 종교적인 의미의 천국의 존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상에서의 삶을 강조한다. 죽음의 과정 이후의 종착지인 천국을 통해서도 불멸의 획득 방법을 얻지 못한 디킨슨은 그 관심을 천상에서 지상으로 돌리게 된다. 디킨슨은 지상의 존재가 천상의 영원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종교적 천국은 그녀가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보다는 의식의 확장을 통해 실제적 존재는 지상에 머물러 있지만 영혼은 우주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비록 이로 인해 광활한 우주속의 한 점으로 전락해버리지만 의식의 무한한 확장으로 천국보다 더 높은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 디킨슨에게 이러한 우주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세의 고통이 사라진 불멸의 공간이다.

다음의 시에서 디킨슨은 자아의식을 확대시켜 자아의 의식세계를 성장시키고 있다.

우리의 의식은 — 하늘보다 넓으니 —  
 그 들을 — 나란히 놓아보면 —  
 의식이 하늘을 다 담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Brain— is wider than the Sky—  
 For — put them side by side —  
 The one the only other will contain  
 With ease — and You— beside — (P. 632)

디킨슨은 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한다. 지상의 이미지를 통해 의식의 끊임없는 무한한 세계를 보여준다. 자아의식으로 상징되는 “뇌”는 불멸을 인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뇌는 하늘·바다보다 높고 넓으며 자아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서 신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할수 있다. 디킨슨은 종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더 깊은 내부세계를 추구함으로써 신과 대등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삶은 매우 숭고한 것이나,  
우리가 맞게 될 내세의 삶은  
무한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이 현세의 삶을 능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우주를 관찰하고  
모든 영역을 보고 나면  
더할 나위 없이 작았던 인간의 마음이 확대되어  
내세의 삶도 하찮은 것으로 만듭니다

The Life we have is very great,  
The Life that we shall see  
Surpasses it, we know, because  
It is Infinity  
But when all Space has been behold  
And all Dominion shown  
The smallest Human Heart's extent  
Resuces it to none (P. 1162)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삶은 유한하지만 “내세의 삶”은 “무한한” 삶이기  
에 “내세”는 “현세의 삶”을 능가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디킨슨은 내세의 삶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고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내세의 삶”을 “현세의 삶”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식의 확장은 현세의 삶  
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디킨슨에게 지상에서 영원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극복해야할 한가지는 바로  
죽음의 문제다. 청교도적인 의미에서 사후의 영원성에 의존하기에는 비현실적이

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녀는 지상위의 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죽음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삶을 택함으로써 죽음마저도 삶의 일부처럼 받아 드릴 수 있게 된다. 디킨슨의 이러한 시적태도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다음의 철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이 죽음을 앞에 둔 유한한 존재라는 인식을 통해서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 앞에 직면할 수 있으며 진정한 존재성의 인식은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5)</sup>

지상위의 유한한 존재로서 지상의 것과 그 존재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디킨슨의 죽음에 대해 취하는 태도이다. 다음의 시에서 디킨슨은 유한한 지상적 삶 자체를 “힘”으로 인식한다.

살아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막강한 힘이-  
실존 그 자체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한정한 힘이  
살아갈 수 있다면  
신의 경지 아니겠는가?  
비록 그 생명이 유한하더라도

To be alive- is power-  
Existence - in itself-  
Without a further function-  
Omnipotence- Enough-

To be alive- and Will!  
'Tis able as a God-  
The Maker- of Ourselves-be what-  
Such being Finitude! (P.677)

35) Martin Heidegger, *Existence and Being* ed. Werner Brock. (Chicago: Regner, 1949), p. 67

디킨슨에게는 중요한 것은 실존하는 그 자체이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한한 지상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시속에서 신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무한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의식은 신조차도 자신의 밑에 두고 있다.

디킨슨은 의식의 확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모두 다 같을지라도 개인의 의식의 확장의 정도에 따라 인식하는 세계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디킨슨은 단순히 전통적 관념에 의해 존재가 전형적·획일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한다.

사물의 인식은  
곧바로 그것의 상실  
인식 자체는  
그 대가를 치르는 획득이니-  
절대의 사물은 -무-라  
인식이 그를 온당케 하고  
멀리 있는  
완전함을 질책하네

Perception of an object costs  
Precise the Object's loss-  
Perception in itself a Grain  
Replying to its Price-  
The Object Absolute-is nought-  
Perception sets in fair  
And then upbraids a Perfectness  
that situates so far- (P.1071)

“절대의 사물”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투영되지 않은 객관적 대상은 추상적이어서 의식과 분리되어져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절대성을 배제하고 상상력에 의해 자아가 무한히 확대되어짐에 따



라 절대성이 배제되고 재인식 되어져 대상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의식과 객관적 대상인 외부의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의식과 물체가 관계를 맺는 상호 작용이다. 외부의 있는 객관적대상은 투명한 상태에서 의식 속에 투영되고 의식은 어떠한 편견 없이 인식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시에서 “객관적 대상”과 “의식의 주체”간의 상호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외부의 것은-내면으로부터  
그 위엄을 부여받는 것-  
그것이 공작인지 시종인지  
중심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네

고고한 채 요지부동인 축대가  
바퀴를 제어하듯-  
비록 회전하는 바퀴살 요란하게  
먼지내어 도는 동안에도

The Outer- from the Inner  
Derives its Magnitude-  
Tis Duke, or Dwarf, according  
As is the Central Mood-

The fine-unvarying Axis  
that regulates the Wheel-  
Though Spokes-spin- more conspicuous  
And foing a dust-the while (P.451)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을 “의식의 대상”과 “의식의 주체”로 묘사함으로써 두 개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심원적 바퀴의 이미지가 된다. 외부의 대상은 의식의 주체의 상상력을 통해서 “귀한 것”이 되기도 하고 “왜소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의식의 바퀴는 의식의 공간을 한정시키는 “바퀴빼기”가 없으므로 무한한 의식의 확장을 통해 외부의 대상의 존재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인은 불멸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자아의 확대와 더불어 자연속의 생명력을 통해서도 불멸의 힘을 발견한다.

줄지어 나는 씨앗들을 보고—  
차가워진 공기를 부드럽게 가르며  
떨어지는 쓸쓸한 낙엽을 보고서야 가을임을 알았습니다

오 여름날의 상징이여,  
오 아지랑이 속의 마지막 성찬식에—  
이 어리석은 자도 참가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Till ranks of seeds their witness bear —  
And softly thro' the altered air  
Hurries a timid leaf

Oh Sacrament of summer days,  
Oh Last Communion the Haze—  
Permit a child to join (P. 130 )

시속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가을에 허공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씨앗들 속에서 불멸의 힘을 발견한다. 가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여름 날씨에 시인은 여름이 다시 온 줄로 착각하지만 다시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가을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떠다니는 씨앗들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라짐이 또한 다시 살아난다는 재생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불멸의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시인자신도 불멸을 향한 “성찬식”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즉, 디킨슨은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불멸을 발견하고 더불어 신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는 이세상이 다름 아닌 천국이다<sup>36)</sup> 라고 믿는다.

이처럼 디킨슨의 궁극적 지향점인 불멸의 추구는 그녀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 출발한다. 디킨슨은 지상의 현실 속에서 낙원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의 정원·과수원·산책로 등에서 관찰되는 자연현상 속에서 큰 위안을 얻는다. 김펠(Ben Kimpel)은 디킨슨은 자연을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여겼기 때

36) Albert J. Gelpi, *Emily Dickinson: The Mind of the Poet* (Mass: Harvard UP. 1971), p. 80.

문에 의식을 확장시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그 자신을 연결 시킨다<sup>37)</sup>라고 주장한다. 여러 자연현상과 그들의 변화과정은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닌 시인 자신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는 생명체로서 존재한다. 자연 속에서 디킨슨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아추구를 할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성향을 배우게 된다.

디킨슨은 그 외에도 사랑을 통해서도 불멸의 힘을 확신한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불멸이니까,  
아니요, 그것은 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활력을  
신성으로 바꾸죠

Unable are the Loved to die  
For Love is Immortality,  
Nay, it is Deity—

Unable they that love—to die  
For Love reforms Vitality  
Into Divinity. ( P. 809)

이 시속에서 “사랑”은 “불멸”이며 “신”이다. 즉, “사랑”은 절대적인 존재인 동시에 불멸이다. 또한 신적인 존재인 사랑은 “활력”을 “신성”으로 바꾸는 존재이다. 사랑은 인간을 죽음을 뛰어넘어 불멸의 세계로 안내하며 죽음과 불멸을 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사랑을 하는 자와 받는 대상 모두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초월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즉, 디킨슨은 사랑을 이 우주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주장한다.

사랑은 생명보다 선행하고,  
죽음 뒤에 오는 것

37) Ben Kimpel, *Emily Dickinson as Philosopher* (New York: The Edwin Mellon P. 1981), p. 197.

창조의 시초이며  
대지의 대변인이다

Love —is anterior to Life—  
Posterior —to Death  
initial of Creation, and  
The Exponent of Earth— (P. 917)

이처럼 사랑이란 생명보다 이전에 존재했고 죽음 뒤에 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선은 사랑으로 인해 허물어지고 통합되어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인도자이다. 디킨슨에게 사랑은 고통의 정점에서 성취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디킨슨은 삶과 죽음을 파헤치면서 그 두 요소를 이어주는 사랑의 힘을 인식하게 된다. 사랑은 창조의 원동력이자 즉, 지상의 삶을 대변 해줄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디킨슨은 무엇보다도 시의 예술세계를 최후의 불멸성으로 간주한다. 시를 통해서 불멸을 추구하는 태도는 아래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장미정유는 —장미에서  
짜낸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 —혼자서는 —짜낼 수 없는  
밀착 기를 거쳐 짜내는 선물입니다—

보통의 장미가 —시들 때—  
여인의 서랍속의 —이 장미는  
여름을 만들어 —그때 그 여인을  
불후의 로즈마리 속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Essential Oils — are wrung—  
The Altar from the Rose  
Be not expressed by Suns— alone—  
It is the gift of Screws—

The General Rose — decay—  
 But this— in Lady's Drawer  
 Make Summer — when the lady is  
 In Ceaseless Rosemary— ( P. 675)

디킨슨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인 죽음과 불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만의 종교를 구축한다<sup>38)</sup> 디킨슨은 시 라는 자신만의 종교에 확장된 의식을 투영한다. 디킨슨이 시인을 어떻게 정의할 내리고 있는가는 “장미정유”(薔薇精油)라는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장미”라는 꽃은 자연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점점 시들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장미를 압축기를 통해 증류시켜 두면 “장미정유(精油)”는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보통의 장미가 시들 때” “장미정유”는 여인의 서랍 속에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퍼져 나가 여름의 환희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디킨슨에게 자신만의 종교이자 미의 정수는 시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시는 시인의 정신적 고뇌 갈등을 통해 증류된 불멸의 로즈마리로서 그녀가 자연 속에 시간의 흐름에 의해 점점 늙어가 현세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라도 그녀의 고뇌의 산물인 시는 영원히 남아 후세에게 영속적으로 전해져 장미향유 처럼 널리 퍼져 그녀의 의식만큼은 시속에 불멸의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밀러(Cristanne Miller)는 삶에 있어서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 성취됨을 이 시의 구문상의 모호함을 지적함으로써 드러낸다.

동사가 주어나 시제에 따른 모든 제한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것은 시에서의 장미처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형태로 응축되어 있다. 시가 말해 주듯 본질적인 의미는 온전히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며 그것이 꽃이든 시이든 간에 자연히 생산된 것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대신에 본질적인 의미는 태양과 나사라는 그들의 고통, 노력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다.<sup>39)</sup>

그러므로 디킨슨은 시인이란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놀랄만한 의미를 추출해내서 곧 사라지고 마는 유한하고 평범한 것들로부터 훌륭한 “장미정유”(薔薇精油)를

38) Anderson, p. 260.

39) Cristanne Miller, "How 'Low Feet' stagger" in *Feminist Critics Read Emily Dickinson*, ed, Suzanne Juhasz. (Bloomington: Indiana UP. 1983), pp. 138-139.

정제해 내는 기술자라 정의한다.

즉, 디킨슨이 추구했던 불멸의 비전은 바로 시인이 창조하는 시를 통해 완성된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 보내는 나의 편지입니다  
한 번도 답장을 받아 본적은 없지만—  
자연이 다정한 위엄을 갖고 말해준—  
소박한 소식입니다

자연의 메시지는 내가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집니다  
독자들이여—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나의 시를 — 후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This is my letter to the World  
That never wrote to Me—  
The simple News that Nature told—  
With tender Majesty

Her Message is committed  
To Hands I cannot see —  
For love of Her — Sweet — country men—  
Judge tenderly — of Me (P. 441)

이 시에서 디킨슨은 자신의 시를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밝히고 있다. 한 번도 자신의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시인으로서 자연의 소박한 소식을 시라는 편지에 적어서 전달하는 임무를 다하고 있다. 자신의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그녀의 시가 후세의 독자들에게 전달 될 것을 예견하고 자연을 사랑하듯이 자신을 시의 후한 평가를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불멸의 예술세계에 투영시킴으로써 그녀는 영원한 삶을 소속에서 찾을 수 있었고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었다. 그녀의 육체적 존재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지라도 시를 통해 추출되어진 미와 진리는 오늘날까지 시를 통해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간직 될 것이고 살아 숨 쉬는 것이다.

디킨슨은 죽음이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밝혀내고자 한다. 죽음이후의 거처에 대한 호기심은 천국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시속에서 천국은 “작은 마을”로 묘사되어지는데 이러한 천국은 짧은 수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을로 지상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곳이다. 불투명하고 모호 하기만 한 천국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의 삶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디킨슨에게 지상위에서 영원성을 인식하는데 극복할 문제는 죽음이다. 디킨슨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러한 정지된 순간에 의식을 무한히 확대시킴으로써 우주의 순환과정 속에 하나의 점으로 포착하여 죽음마저도 일부처럼 받아드린다.

이처럼 디킨슨은 지상의 것과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유한한 지상의 삶 자체를 “힘”으로 받아드린다. 디킨슨은 지상의 삶에서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고 의식의 확장을 통해 시를 통해 신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자”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무한한 “힘”을 갖게 된다. 또한 자연현상 속에서 한 존재가 사라짐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라짐이 있으면 새로운 탄생이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인 동시에 다시 살아난다는 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처럼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불멸을 발견하고 살아있는 것의 강한 힘을 얻게 된다. 디킨슨은 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 우주의 순환과 끝없이 연속하는 자연의 흐름을 통해 죽음을 삶의 과정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디킨슨에게 최후의 불멸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예술세계이다. 예술은 미도 되지만 또한 영원불멸이기도 하다. 시인은 죽어도 작품은 영원토록 남아있듯이 디킨슨의 시는 바로 영원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 IV. 결론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한번은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지상의 삶을 어느 순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괴적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저항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좌절하며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죽음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실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쳐야함을 알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내내 사람들을 고뇌하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죽음 후에 존재한다는 불멸의 삶에 대해 집착해 삶이 더욱 연장되어지는 징후를 발견하고 싶어한다. 죽음과 불멸의 주제에 대한 관심은 디킨슨도 예외는 아니었다. 디킨슨이 반생애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 할 수 있던 원동력은 죽음과 불멸의 주제에 대한 시를 창작하는데에 있다. 두 주제에 대한 시가 그녀의 작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디킨슨의 시에 나타나는 죽음의 인식 과정은 그녀의 삶의 과정에서 겪은 직·간접적인 죽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잃게 된다. 주변사람들을 잃은 상실감은 그녀가 죽음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그녀의 집 주변에는 많은 공동묘지가 있다는 지리적인 이유도 그녀가 타인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시신의 운구과정에 끊임없이 노출되도록 한 요인이 된다. 더불어 디킨슨의 죽음과 불멸에 대한 시들은 종교적 고민의 소산이기도 했다. 그녀가 살던 암허스트는 청교도주의가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죽음과 사후세계의 삶이 사람들의 자연스런 관심사가 되었다. 디킨슨은 신이 가져다 준다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세의 삶을 극기사상으로 죄인처럼 살아야한다는 점에 종교적 회의를 느끼게 된다. 청교도주의에 대한 회의는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죽음이란 사후세계의 삶의 시작이기에 디킨슨에게는 자세히 관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관찰을 통해 죽음의 순간에 사후세계를 인식할수있다고 생각한다. 디킨슨은 죽음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분석적으로 밝혀내고 싶어한다. 그런 맥락에서 그녀는 죽음을 마치 현미경을 대고 있는 듯이 정확하게 관찰하는



자세를 취한다. 죽어가는 이의 시신의 관찰을 통해 죽음이후의 세계까지도 포착하려 한다. 그러나 시신이 안겨주는 침묵성 때문에 죽음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만, 타인의 죽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 “냉기”, “서리”, “차가움”의 이미지를 통해 “유리”, “돌”과 같은 대상으로 구체화 시켜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디킨슨은 이러한 죽음을 막연히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 무한한 삶의 과정 속의 정지된 순간으로 본다. 시간의 개념이 지워진 이 순간에 의식의 확장을 통해 삶과 죽음사이의 끊임없는 순환과정을 깨닫게 된다. 이때 죽음은 삶의 연속과정에 놓여있는 하나의 과정이며 끝이 아니라 삶을 강화시키고 영원의 순간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물리적·육체적 소멸의 과정을 인지하게 된다. 정지성으로 인식되는 죽음의 속성이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디킨슨은 그 순간에 자신의 의식을 상상력을 통해 무한대로 확장시킴으로써 죽음의 인식 순간을 시를 통해 담아내어 예술적 비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디킨슨이 죽음에서 얻어 내는 상상력의 에너지는 죽음을 그자체로 인식할 때만 획득된다. 이는 죽음이 수반하는 고통 또한 감내하고 받아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은 유한한 지상적 존재임에 대한 깨달음이자 숨길 수 없는 것이기에 디킨슨은 죽음을 현실 속에 나타나는 자신의 경험처럼 인지하게 된다.

죽음의 고통은 소멸과 상실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빈 공간으로 표현되는 무의 공간은 고통을 통해 시간적 개념이 지워진다. 바로 이때 순수한 영역 속에서 확장되는 의식의 확장을 통해 유한성을 인식하게 된다. 더불어 디킨슨은 자연의 순환과정을 통해 죽음이란 광활한 우주의 순환 속에 한 점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보편적인 한 부분이자 자연현상의 일부로 포착하여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드린다. 그리하여 자신의 유한성을 느낄 수 있는 현세에서의 지상의 삶을 더욱더 선호하게 된다.

죽음이후에 디킨슨이 머무르게 될 공간에 대한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불멸의 시작점으로 연결되며, 동시에 죽음과 불멸을 이어주는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무덤을 탐구하게 된다. 무덤은 안전한 공간인 동시에 구원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밀폐된 장소이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의 무덤을 디킨슨은 존재의 끝으로 여

가지 않는다. 오히려 디킨슨은 정지의 순간에 자아의 무한히 확대함으로써 무덤 밖의 순환하는 우주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인식한다. 이때의 죽음이란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통로가 되며 이 곳을 지나갈 때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킨슨은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으며 이때 죽음은 삶의 전체적 과정으로서 끊임없는 영원을 포함하는 순간이다.

디킨슨은 불멸의 추구 하는데 있어서 자아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 추상적이고 막연한 외부의 대상을 의식의 주체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의미로 창출하고자 한다. 그녀는 전통적이고 형식적이고 완전한 의미는 의식의 확장에 따라 결과물이 다양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정신은 디킨슨의 시에도 잘 드러난다. 디킨슨은 무엇보다도 시의 예술세계를 최후의 불멸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시인이란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놀랄만한 의미를 추출해내 곧 사라지게 될 유한하고 평범한 것들로부터 훌륭한 장미정유(薔薇精油)를 정제해 내는 기술자로 규정한다. 디킨슨에게 시인의 임무는 창조주의 천지창조만큼이나 위대한 것이고, 동시에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시작에만 전념한 점에서 가장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시인이다.

디킨슨은 일생의 대부분을 은둔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내적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에 최선을 다했으며 출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세계를 지키려한다. 은둔생활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여 시작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던 결혼이나 출판도 거부한다. 디킨슨이 “나의 소명은 듣는 자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노래하는 것”이라는 말한 것 처럼 세상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고 예술세계에 몰입하여 시를 창조해내는 과정을 소중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뛰어난 시적 통찰력으로 인간의 불안감,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일생동안 끊임없는 정신적 고뇌를 하면서 청교도주의, 초월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나 전적으로 의존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만의 내적자아 추구의 도구로 시를 선택하여 무한한 자아의식의 확대로 자신만의 종교인며 출판을 하불멸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시는 모든 세대출판초월하는 장미정유(薔薇精油)처럼 많은 세대들에게 퍼져 불멸의 노래로 남아있을 것이다.

## Bibliography

### 1. Primary Reference

Dickinson, Emily. *The Complete Pome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 London: Faber & Faber, 1970.

\_\_\_\_\_. *The Letter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 & Theodora Ward. Cambridge: Harvard UP, 1958.

### 2. Secondary Reference

Anderson, Charles R.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Bianchi, Martha Dickinson. *The Life and Letters of Emily Dickinson*. Mass: Houghton Mifflin Co., 1924.

Bloom, Harold. *Emily Dickinson*. Ed. New York: Chelsea House P. 1985.

Alexander, Charlotte.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New York: Monarch P. 1965

Cameron, Sharon. *Lyric Time: Dickinson and the Limits of Genr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9.

\_\_\_\_\_. *Choosing Not Choosing: Dickinson's Fascicles*. Chicago: U. of Chicago P. 1992.

Dores, Dyer Lucas. *Emily Dickinson and Riddle*. Dekalb: Northern Illinois UP, 1969.

Emerson, Ralph Waldo. *Selections from Ralph Waldo Emerson: An Organic Anthology*. Ed. Stephen Em Whicher.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0.

Ferlazzo, Paul J. *Emily Dickinson*. Boston: G. K Hall & Co., 1976.

\_\_\_\_\_. *Critical Essays on Emily Dickinson*. Boston: G. K. Hall & Co., 1984.

Ford, Thomas W. *Heaven Beguiles the Tired: Death in the Poetry of Emily*

- Dickinson*. Alabama: Alabama UP, 1968.
- Gelpi, Albert J. *Emily Dickinson: The Mind of the Poet*. New York: The Norton Library, 1971.
- Griffith, Clark. *The Long Shadow: Emily Dickinson's Tragic Poetry*. New Jersey: Princeton UP, 1964.
- Heidegger, Martin. *Existence and Being*. Ed. Werner Brock. Chicago: Regnery, 1949.
- Johnson, Thomas H. *Emily Dickinson: An Interpretive Biography*. Mass: Harvard UP, 1955.
- Juhasz, Suzanne, (ed.) *Feminist Critics Read Emily Dickinson*. Bloomington: Indiana UP, 1983.
- Kimpel, Ben. *Emily Dickinson as Philosopher*. New York: The Edwin Mellon P. 1981.
- Loving, Jerome. *Emily Dickinson: The Poet on the Second 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86.
- McNeil, Helen. *Emily Dickinson: Monarch of Perception*. Mass : Mass UP, 2000.
- Miller, Cristanne. "How Low Feet Stagger" in *Feminist Critics Read Emily Dickinson*. Ed. Suzanne Juhasz. Bloomington: Indiana UP, 1983.
- Pickard, John B. *Emily Dickinson: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on, 1967.
- Sewall, Richard B. *The Life of Emily Dickinson*. Cambridge: Harvard UP, 1968.
- \_\_\_\_\_. *Life of Emily Dickinson*. Mass: Harvard UP, 1994.
- Seycrested Brita Lindberg, *The Voice of the Poet : Aspects of Style in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Mass: Harvard UP, 1968.
- Smith, Martha Nell. *Rowing in Eden: Reading Emily Dickinson*. Austin: Texas UP, 1992.
- Tate, Allen. *On the Limits of Poetry*. New York: The Swallow Press and William Morrow & Company, Publishers, 1948.
- \_\_\_\_\_. *Six American Poets: from Emily Dickinson to the Present*. Minneapolis: Minnesota UP, 1969.
- Waggoner, Hyatt H. *American Poets: From the Puritans to the Pres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8

Whicher, George F. *This Was a Poet: A Critical Biography of Emily Dickins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8.

Weisbuch, Robert. *Emily Dickinson's Poetry*. Chicago: Chicago UP, 1975.

Wells, Henry W. *Introduction to Emily Dickinson*. Chicago: Hendricks House, 1947.

강은교. 『한줄기 겨울빛이 비스듬히』, 서울 : 민음사, 2003.

김명옥. 『세상에 보내는 나의 편지』, 서울 : 해원출판사, 1996.

김재현. 『영미시의 이해』. 서울 : (주)외국어연수사, 1999.

이창배. 「현대 영·미시 해석」, 서울 : 탐출판사, 1995.

강민숙, 「Emily Dickinson의 시에 나타난 양면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0.

김은영. 『에밀리 디킨슨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인식과 시적 비전』,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1999.

김주란, 『Emily Dickinson의 죽음에 관한 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6.

박향선. 「Emily Dickinson 시에서의 자아표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80.

<Abstract>

## Subjects of Death and Immortality Theme in Emily Dickinson's Poetry

Choi, ju-mi

(Supervised by professor Hur, Yoon-Deok)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Emily Dickinson is influenced by powerful spiritual trends of New England Puritanism, Transcendentalism, and Positivism. The themes of death and immortality are, quite properly, two distinct subjects of Emily Dickinson's poetry. No poet writes poems more than Emily on Death and Immortality. She is influenced by her social environment. She could not accept the Puritanism for the salvation in the Kingdom of Heaven. Thereupon she rejected a religious life by accepting the spirit of self-confidence and man's dignity of Transcendentalism. She experiences the death of several friends and acquaintances early in her life. It stirs her contemplation of death and salvation and also makes her realize the inevitability and universality of death. Thereby she gets absorbed in her inner world and contemplates death and immortality. She considers death from various angles, observes it elaborately and experiences her own death through the imagination. From those she can make the death which is abstract an experience of life and a natural phenomenon. Eventually she can approach the substance of death. She can recognize the negative aspects of death that contain universality, inevitability, finality and a destructive power. Meanwhile she can appreciate that death can be a delightful experience that can awake us to the value of life. And she thinks that death leads us to the immortality.

Dickinson thinks that death is not only the finish of life but also is the starting point at which life passes into eternity. She questions in what state the soul stays after death. And she keeps inquiring about the world after death including the grave, Heaven and God. After being caught between faith in Heaven and disbelief, she eventually gives up the immortality in

Heaven. Rather she finds out the immortality in the continuance of nature, in the vitality of love and in the infinity of self consciousness. Because she feels confident that art is immortal, she pursues and acquires immortality through poems. Therefore, she chooses her own way in which she can live immortal life. For her, Poetry is perpetual and immortal lif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0